



김기빈 |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/
중앙지명위원회 위원(dclangkb@hanmail.net)

남도의 젓줄 영산강 (榮山江)

- 옛날 나주와 무안의 두 목포, 영산강과 흑산도의 인연

1. 강물의 흐름은 신의 은총이요, 축복과 경배의 상징

한 가닥이 우줄거리 만 가닥으로 퍼지는 것은 산이요,
만 구비가 휘돌아 한 줄기가 되는 것은 물이다.
산골마다 흐르는 억만 줄기 감도는 물이 끊일 새 없이
천고의 시름을 싣고 열네 개 큰 강을 이루어...

- 박종화 「전야(前夜)」 중에서

만 구비가 휘돌아 한 줄기로 되고, 만 줄기가 흘러 한 곳
으로 들어가니 이름 하여 '바다'다. 그리하여 인간들이 붙
여놓은 억만 줄기 강 이름은 모두 '바다'라는 한 이름 속으
로 사라진다.

그러나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강은 숯한 전설과 사연
을 실어 나른다. 천년을 한 가지로 흐르면서 세월을 계산하
는 것은 강물뿐이다. 인류의 역사, 인간사의 영고성쇠(榮枯
盛衰)가 바로 이 강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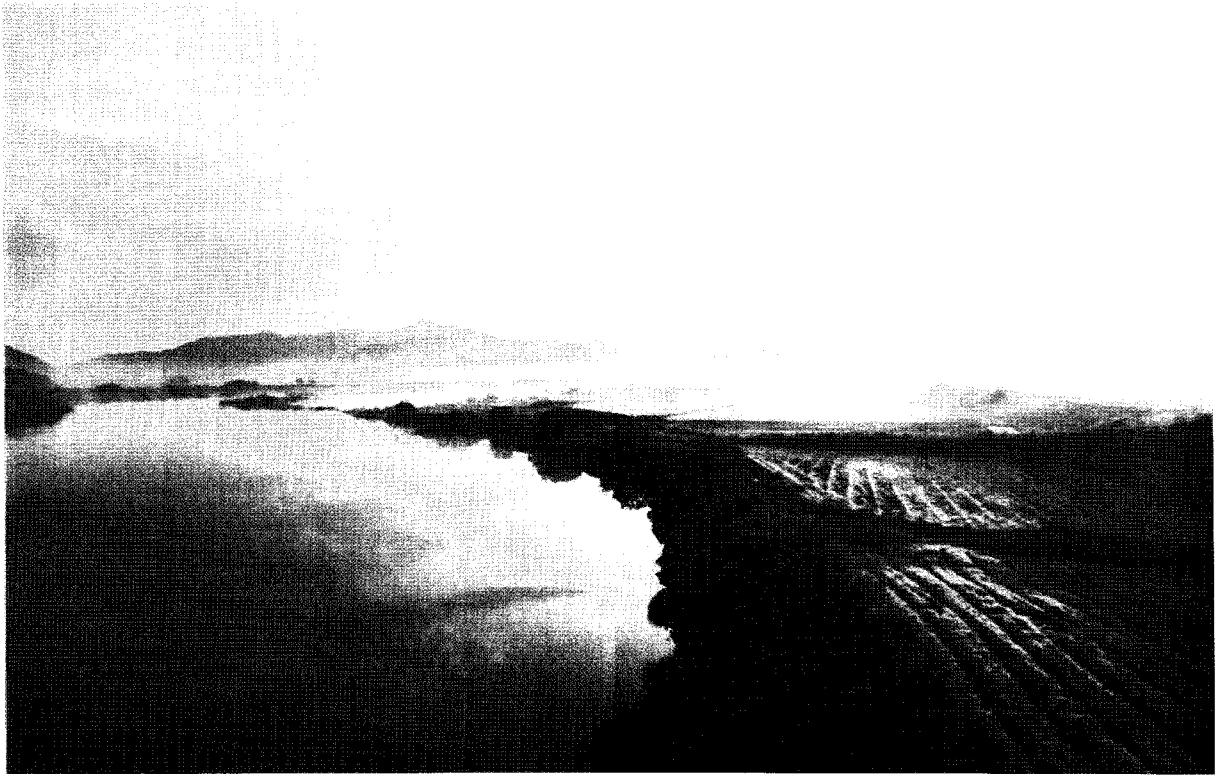
역사적으로 강은 순리와 근원의 상징이다. 순리(順理)를
어기는 자, 천명(天命)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
에 없는 것을 강이 가르치기 때문이다. 강은 생육자(生育
者)이자 교화자(教化者)이며 또 스스로 끊임없이 선(善, 낮

은 곳)을 지향하여 흐르는 구도자(求道者)로서 인간의 스승
이 된다. 이것은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, 그리고 험만 헤세의
글이나 여러 고전에 잘 나타나고 있다.

낙하(洛河), 황하(黃河), 위하(渭河)는 중국의 고대에 각각
하(夏)나라, 상(商)나라, 주(周)나라를 상징하였다. 이 세 강
은 모두 중국의 북부지방을 흐르는데, 낙수의 물이 마르자
하나라가 망하였고, 황하가 마르자 상나라가 망하였다. 그
리고 위수의 물이 막히자 주나라도 멸망할 것이라 하였는데,
과연 그리 되었다.

본시 나라는 산천, 특히 강에 의지하는데, 강이 마르면 그
나라가 망하며 멸망의 징조로 보았던 것이다. 이것을 오늘의
시각에서 다시 해석해보면, 무절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하천
개발, 강물의 오염문제, 공장 폐수문제, 기타 환경문제 등과
연결해 볼 수 있다.

강물의 흐름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은총이자 그 선물로 해
석되었으며 강은 경배와 제사와 기도의 대상이었다. 그런 강
의 신성성(神聖性)이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훼손될 때, 축복
의 강은 아케론, 레테, 코시투스 같은 지옥의 강들이 되고,
그것은 인간에게 비탄과 고통과 증오를 상징하는 강물로, 그
리고 신의 형벌로 상징되었음을 생각해 본다.



2. 영산강은 본래 '금강(錦江)-큰 강'으로 불리진 물류중심지

길이 123km(이 길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)로서 우리나라 (남한)에서 다섯 번째로 긴 영산강(榮山江)은 어떤 강일까. 한강, 낙동강, 금강 등 이 나라의 여러 강이 그러하듯이, 영산강도 역시 역사의 강일 수밖에 없다. 역사를 이루었던 강, 역사를 실어 나른 강, 그리고 역사의 전기(轉機)가 되었던 강이기 때문이다.

이 강 언저리는 아득히 선사시대부터 강이 베풀어준 기쁨진 들녘에서 농경문화가 꽃피워졌고, 그것은 나주 일대에 자리 잡았던 마한 54국 중의 하나인 불미지국(不彌支國)을 비롯한 여러 부족국가들의 수많은 고분이나 문화유적을 통하여 알 수 있다.

또 백제 건국 이후 중국과의 교류,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가 이 강 언저리 무안-영암-해남 등지에서 이루어졌고, 신라 말기에는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서남부의 패권을 두고 이 강(몽탄강)에서 한 판 승부를 벌이기도 하였다.

또 350리 영산강 물줄기는 백제-고려시대에 이어 조선 중

종 때까지 이미 어선과 조운선이 드나드는 해상(강상) 물류의 중심지(영산창)로서 오늘의 '영산강'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, 지금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(물론 후대에 복원한 것이지만) 영산강 등대야말로 변창했던 옛 영산강 나루터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.

특히 영산강은 고려 왕건의 혼요십조 이후 호남인 - 남도 사람들의 길고 긴 떠돌림, 소외와 저항의 세월, 그 역사의 한 가운데를 흘러온 강으로서, 이 강 언저리에는 수많은 반외세 투쟁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음을 유의해야 한다.

세월은 가도 이름은 남는다. 백년을 못사는 인간들도 제 이름을 남기고자 돌과 바위와 책에 부지런히 이름 석 자를 새겨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데, 하물며 강물의 이름이야 말해 무엇하랴.

영산강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, 원래의 이름은 금강(錦江), 금천(錦川)이요, 혹은 남포(南浦) 또는 목포(木浦)라 불렸고, 지역에 따라서는 강이 휘돌아 흐른다 하여 곡강(曲江-나주 동강면), 몽탄강(夢灘江-꿈여울, 금-S자로 휘어진 여울-무안 몽탄면), 사호강(沙湖江-정약용, 구비 구비

모래가 많아서), 금호강(錦湖江-금강의 뜻, 나주 다시면 일대, 금호그룹 창업주의 고향) 등 여러 이름이 있다.

여기서 금강(금천)이라는 이름은 국어학적으로 '큰 강'을 뜻하는 말이다. '큰 강'을 발음이 유사한 한문 가호자(佳好字)를 붙여 표기한 것이다. 가령 부여 백마강도 금강이요, 부안 동진강의 옛 이름도 금강이니, 나주 영산강의 옛 이름이 금강인 것은 모두 그 뜻이 '큰 강'을 뜻하기 때문이다.

3. 고려 때 흑산도 영산주민 집단 이주한 남포(앞개)

한편 남포(南浦)는 우리말의 '앞개'로서 나주 읍내 앞을 흐르는 강을 뜻하지만, 이 앞개-남포가 변하여 나무포(木浦)목포(木浦)로 된 것은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여기서 '목포'라는 이름은 지금 목포시와는 다른 나주시 영산동 일대를 말하는 것이며, 이 지역은 옛 고을 영산현이 있었던 곳이다.

《세종실록지리지》(1454) 나주목조에는 나주에 속한 옛 8개 현이 차례로 나오는데 그중 맨 먼저 나오는 곳이 영산현(榮山縣)이다.

영산(榮山) 본흑산도(本黑山島) 출륙이배주남십리(出陸移排州南十里) 남포강변(南浦江邊)- 영산현은 본래 흑산도에 있었는데 섬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 나주 남쪽 십리 되는 남포강변으로 옮겼다.

고 하였고, 《고려사지리지》(1451-1454)에도

남포진(南浦津) 흑산도(黑山島) 도인출륙교우(島人出陸僑寓) 남포강변(南浦江邊) 칭영산현(稱榮山縣) 공민왕 12년(恭愍王十二年) 승위군(陞爲郡) - 섬사람이 육지에 나와 남포강변에 살았으므로 영산현이라 불렀으며, 공민왕 12년 올려서 군(郡)이 되었다.

고 하였다. 그 후에 나온 《신증동국여지승람》에는

금강진(錦江津) 일명금천(一名錦川) 일명목포(一名木浦) 흑운남포(或云南浦) - 금강나루는 금천 또는 목포 혹은 남포(앞개)라고 부른다.

고 되어 있어서 나주고를 남쪽 십리에 있는 남포는 흑산도 주민의 집단 이주에 의하여 생긴 그전 영산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.

이것을 종합 정리해보면, 고려 때 지금의 신안군 흑산면(당시는 현 - 고을이 있었으며, 흑산도 바로 동쪽에는 지금도 영산도(永山島)라는 섬이 있다) 사람들이 왜구를 피하여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와 나주 근처의 남포(앞개) - 목포에 마을을 개척하였고, 공민왕 때 거기에 영산현을 두었는데, 이 고을은 조선 초기에 폐지되었다.

그러므로 지금의 목포 - 무안의 목포(앞개 - 남포)에 대하여 나주의 목포는 곧 지금의 영산포로서 나주시 영산동 일대를 말하는 것이다. 따라서 17세기 말까지 영산강은 금강(錦江) 또는 금천(錦川)이라 불렀고, 17세기 말엽에 만들어진 《여지도서》에 영강(榮江-영산강의 준말)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'영산강'이라는 이름은 그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이 영산강 유래에 대하여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다. 옛날 흑산도 바로 옆에 영산홍(映山紅)이 많이 피던 영산도라는 섬이 있었다고 한다(앞에서 말한 영산도 일 것이다). 이 영산도 사람들이 왜구의 침략을 피하여 집단으로 나주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, 이때 고향인 영산도를 생각하고 그 포구를 영산포라 하였으며, 강 이름도 영산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. 이 이야기는 그 줄거리가 같으나 유래가 영산홍이라는 재래종 철쭉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는 점이 다르다.

4. 그러므로 「영산강」은 일제 때 고쳐진 이름이 아니다.

그런데 나주의 영산포는 흑산도와 흥어 요리를 통하여 공

통점을 갖고 있다. 흑산도는 우리나라 흥어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인데, 이곳 나주의 영산포 일대는 바로 흑산도 흥어 요리의 그 흥어촌이 형성되어 있고, 흑산도 흥어 맛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서 흑산도 주민 → 영산포 이주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.

영산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강줄기의 아랑사와 아비사의 이야기, 드들강과 극락강, 황룡강 이야기, 앙암(아망)바우 전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으나,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.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“「영산강」은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일제 때 만든 창지명(創地名)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. 2005년도 ‘일제문화 바로잡기’ 시민공모 당시 “영산강과 만경강이라는 이름이 일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름”이라 하여 그 제보자가 1등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그 잘못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빗발치자 시상 직전에 상이 취소된 바 있다.

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. 국민들이 평소 지명에 무관심하다가 이름의 유래나 연혁의 추적이 불문명하면 모두 일제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데서 생긴 오류로서 이런 실수는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.

영산강은 남도의 젓줄이지만, 한편 나주의 강이기도 하다. 영산강이 없다면 나주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런데 영산강의 옛 이름인 금강의 ‘금(錦)-비단’과 나주의 ‘나(羅)-비단’이 서로 통한다. 전라도의 ‘나(羅)’자가 나주에서 빌려온 것이라면, 나주의 ‘나(羅)’자는 바로 영산강에서 빌려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.

이제 강에 대한 화두는 강물의 오염과 환경문제이다.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, 강을 살려야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있다. 물이 나빠지고 오염되면, 맨 먼저 그 고장 술맛(막걸리 맛)부터 변하거나, 필연적으로 변하는 것이 그 고장 인심이다. 물이 변하면, 그 고장 인심도 고약해진다는 뜻이다.

비단결처럼 곱게 흐르는 영산강. 모름지기 강은 살아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흘러야 한다. 강이 살아서 유유히 흘러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며, 무슨 할 일이 있으랴. 인간도 같이 흘러가면 되는 것을.

영산강은 이제 도시의 하수나 산업과 경제의 뒤처리를 위한 강이 아니라, 글자 그대로 영(榮 → 永, 길이 길이) 산(山 → 生, 살아 흐르는) 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. 🌿

